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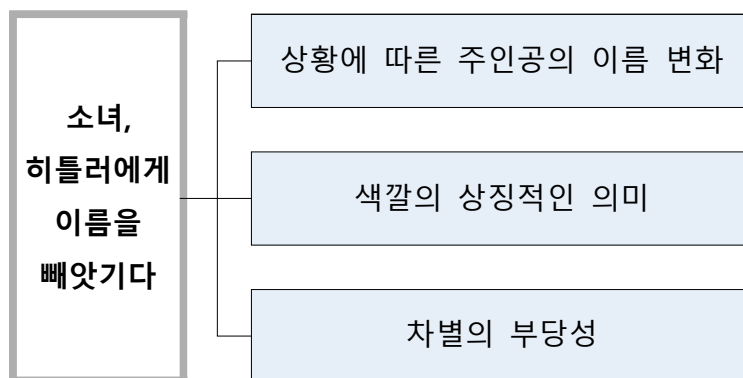
소녀, 히틀러에게 이름을 빼앗기다

- *글 : 마샤 포르추크 스크리푸치 *옮김 : 백현주
- *출판사 : 천개의바람 *정가 : 11,000원
- *분량 : 216쪽
- *대상 : 초등 고 이상, 청소년

· 책 소개

-나치에 의해 삶이 파괴된 소녀를 통해 레벤스보른 프로그램의 실체를 폭로하는 이야기.
 이 책은 자신의 과거를 잘 기억하지 못하는 소녀가 캐나다에 이주하여 적응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처음에 소녀는 기억의 파편 속에서 자신이 나치였던 것 같아 괴로워하며 과거를 알기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지난날의 조각을 하나둘 맞추어 가며 자신이 겪은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며 점차 정체성을 회복해 갑니다. 우리는 이러한 소녀의 이야기를 읽으며 나치의 잔학성과 허황된 생각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소녀를 응원하며 책을 읽어 볼까요?

· 독후활동 주제망



교안 개발 : 허니에듀

★허니에듀는 '공부가 꿀처럼 달콤한 세상'을 꿈꾸는 교육 전문가들의 모임으로, 유초등학부모들의 커뮤니티 허니에듀와 멤버십 서비스 허니에듀 북클럽(유아-초등-청소년)을 운영하며 다양한 독서 교육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 허니에듀밴드 : band.us/@honeyedu
- 허니에듀카페 : <http://cafe.naver.com/honeyedu>

[독서지도안]



독서 전

국어 교과_독서 단원 연계 책 미리 보기 : 표지

-책의 앞뒤 표지의 제목, 글귀, 그림을 살펴봅시다.

1. 이 책의 앞표지에 나타난 정보를 관찰하고 책의 내용을 예측하여 써 보세요.

번호	책의 내용 예측하기
(1)	(예) 소녀가 전쟁을 통해 겪은 피해를 이야기할 것 같다.
(2)	
(3)	

(2~3) 이 책의 뒤표지에 쓰인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히틀러는 나에게 분홍색 원피스를 입히고
손목에 검은 점을 찍었다. 그리고 나의 이름을 빼앗았다.**
나의 이름은 '나디아'다. 기억 속에서 히틀러는 나를 '그레첸'이라고 부른다.
나는 히틀러에게 사랑받는 완벽한 나치 소녀다.
또 다른 기억 속에서 나와 닮은 여자아이는 나를 '라리사'라고 부른다.
도대체 나는 누구일까.

2. '히틀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조사하여 한 문장으로 써 보세요.

⇒

3. 윗글에서 '나'와 관련된 다음 내용을 써 보세요.

위 글에 나타난 '나'의 이름들	
'나'의 이름이 여러 가지인 이유	



독서

국어 교과_독서 단원 연계 책을 즐기며 읽기

- 장면을 떠올리며 읽기 · 상상하며 읽기 · 인상 깊은 부분을 찾으며 읽기
- 다른 작품과 연결 지으며 읽기 · 자신의 삶과 연결 지으며 읽기

『소녀, 히틀러에게 이름을 빼앗기다』를 즐기며 읽어봅시다.

구분	페이지	책을 즐기며 읽기
장면을 떠올리며 읽기	183~185쪽	(예) 갈색 정장을 입은 장학사는 좋은 뜻으로 사탕을 건넸는데 나쁜 기억이 떠오른 '나디아'는 겁에 질려 학교 밖으로 뛰어가는 장면이 떠오른다. 아마도 장학사는 황당한 표정을 지었을 것이고, '나디아'는 공포감에 질린 표정을 지었을 것이다.
장면을 떠올리며 읽기		
상상하며 읽기		
인상 깊은 부분을 찾으며 읽기		
다른 작품과 연결 지으며 읽기		
자신의 삶과 연결 지으며 읽기		



독서 후 독후활동 주제2_색깔의 상징적인 의미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아빠는 나를 굶주린 여자들과 아이들이 줄을 선 곳으로 데려간다. 어떤 사람들은 두꺼운 옷을 입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여름옷을 입고 있다. 모두 가슴에 노란색 별을 달고 있다. 내 또래의 소녀가 한때 아름다웠을 것 같은 노란색 원피스를 입고 있다. 소녀의 노란색 원피스를 입으면 노란색 별이 잘 보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까.

(나) 나는 상자를 무릎에 올려놓고 포장지를 찢는다. 아름다운 분홍색 실크 원피스다. 한 번도 입어 보지 못한 옷이다. 기뻐야 마땅하지만 왠지 마음이 무거워진다. 하지만 아빠를 향해 기쁜 얼굴로 말한다. / “고맙습니다.”

아빠가 웃는다. / “이제 힘멜 가족 모두가 멋진 모습으로 집회에 갈 수 있겠구나.”

나는 원피스를 방으로 가져가 어깨에 대고 거울을 본다. 내가 다른 아이처럼 보인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한다. 침대 옆 작은 등을 켜고 원피스를 입는다. 세탁 세제 냄새와 희미한 다른 냄새가 난다. 땀 냄새일까. 나는 옷을 뒤집어서 살펴본다. 지퍼 한쪽에 작은 리본이 달려 있다. 리본에 작은 글씨로 ‘레이첼 골드스테인’이라는 이름이 수놓아져 있다.

(다) 나도 모르게 연보라색에 손이 갔다. 꽃향기가 머릿속에서 피어오르는 것 같았다. 마당에 심은 조그만 라일락 나무가 생각났다.

“방을 그 색으로 칠하면 좋겠니?”

라일락 빛깔은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게 해 줄 것 같았다.

1. 윗글 (가)~(다)를 참고하여 각 색깔들이 ‘나’에게 무엇을 떠오르게 하는지 아래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쓰세요.

[보기]

- ㉠ 수용소에서 별을 달고 있던 유태인들
- ㉡ 이반 아저씨가 선물로 심어 준 라일락 나무
- ㉢ 힘멜 장군이 준 선물로, 원래는 유태인 소녀의 것이던 원피스

• 노란색 :

• 분홍색 :

• 연보라색 :

2. 위의 세 가지 색깔을 다음과 같이 분류할 때, ‘나’가 느끼는 심정을 참고하여 색깔의 의미가 무엇인지 써 보세요.

노란색, 분홍색



연보라색



독서 후 독후활동 주제3_차별의 부당성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편지에는 나치를 상징하는 문양과 노란 머리를 뺀 여자아이 그림이 있었다. 그림 아래에는 이렇게 씌어 있었다.

“나치 나디아, 히틀러 땅으로 돌아가!” <중략>

“모두 손을 책상에 올려. 손바닥이 위로 향하도록.”

페리스 선생님은 돌아다니면서 아이들 손가락에 붉은 잉크가 묻어 있는지 검사했다. 그러다가 데이비드 자리에서 멈춰 섰다. 선생님은 데이비드의 손가락을 붙잡고 앞뒤로 살펴보았다.

“붉은 잉크구나. 지금 당장 서랍에 있는 물건을 모두 꺼내.”

데이비드는 책상 서랍에 교과서, 공책, 연필, 펜을 꺼냈다. 선생님은 물건들을 보더니 모두 바닥에 던져 버렸다.

“이게 다예요.” / 데이비드는 결백하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선생님은 서랍 안을 뒤져서 공책 한 권과 붉은 잉크가 가득 채워진 만년필을 꺼냈다. 공책에는 끔찍한 ‘나치 나디아’의 얼굴이 몇 장 더 그려져 있었다. 나도 모르게 몸이 움츠러들었다.

(나) 나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교육을 받는다. 얼굴에 표정이 없는 여자가 우리에게 말한다.

“우크라이나 인과 폴란드 인은 열등한 인간이다. 목숨이 허락된 우크라이나 인과 폴란드 인은 아리아 인을 위해 노예로 살아야 한다. 너희는 아리아 인이다. 너희가 부모라고 불렀던 사람들은 모두 도둑이다. 우리 아리아 인들로부터 너희를 훔쳐갔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찾아온 것이다.”

나는 여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안다. / “유태인은 모두 쥐다. 살 가치가 없다.”

사라 언니네 가족이 생각난다. 언니네 가족은 유태인이어서 나치한테 죽었다. 사라 언니의 엄마는 늘 사람들과 빵을 나누어 먹었고, 사라 언니의 아빠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없다.

1. (가)에서 데이비드는 외모가 나치와 닮았다는 이유로 ‘나’를 놀리고 차별합니다. 이런 데이비드에게 충고하는 말을 써 보세요.

⇒

2. (나)에서 표정이 없는 여자(간호사)는 납치된 아이들에게 인종 간에 우열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인종 차별을 하는 사례를 들고, 인종 차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써 보세요.

⇒

[독서지도안]

-예시답안

<도서명 : 소녀, 히틀러에게 이름을 빼앗기다>

출판사 : 천개의바람

■ 독서 전

1. (예시답안)

-폭격기가 도시를 폐허로 만드는 내용이 나올 것 같다.

-히틀러가 소녀의 원래 이름 대신 다른 이름을 지어서 부를 것 같다.

2. (예시답안) 히틀러는 제2차 세계 대전을 일으킨 독일의 독재자이다.

3. (예시답안)

• 윗글에 나타난 ‘나’의 이름들 : 나디아, 그레첸, 라리사

• ‘나’의 이름이 여러 가지인 이유 : 제2차 세계 대전 중 이곳저곳을 끌려다녔기 때문에 여러 이름으로 불렸을 것 같다.

■ 독서

(예시답안)

상상하며 읽기: 211쪽. ‘라리사’가 쓴 편지를 읽고 적십자에서 극적으로 언니 ‘리다’를 찾아서 자매가 다시 만날 것이라고 상상해서 가슴이 뭉클해진다.

■ 독서 후_독후활동 주제1. 상황에 따른 주인공의 이름 변화

1. 라리사 → 그레첸 힘멜 → 나디아

[독서지도안]

2. (예시답안)

- ‘그레첸’이라고 말하지 못하게 한 이유: 사람들이 ‘나’를 나치로 여길 수 있기 때문이다
- ‘나’를 ‘나디아’로 부르는 이유: 아줌마가 ‘나’를 가족처럼 아끼고, 희망처럼 여기기 때문이다.

■ 독서 후_독후활동 주제2. 색깔의 상징적인 의미

1. 노란색: ☉, 분홍색: ☺, 연보라색: ☾

2. (예시답안) 노란색, 분홍색: 죽음 / 분홍색: 안전, 보살핌 등

■ 독서 후_독후활동 주제3. 차별의 부당성

1. (예시답안)

나치는 2차 세계 대전 동안 6백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을 학살하고, 다른 민족의 사람들에게도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어. 외모만으로 나를 ‘나치 나디아’라고 놀린다면 너도 나치와 같은 사람이지 않을까?

2. (예시답안)

외국 스포츠 경기에서 유색 인종 선수가 일부 인종차별주의자들한테 놀림을 당하기도 한다. 어떤 사람을 그 사람의 능력이나 생각 등은 무시하고 인종이 다르다고 차별하는 것은 비과학적이면서 부도덕하다.